

<지난주 말씀>

▶예수의 피는 내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만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그 길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. 우리는 이전에는 다른 길을 열심히 가는 멸망의 인생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.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살 길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.

▶예배란 무엇일까요? 예배는 실체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. 나의 주인되신 그 분의 실체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. 이걸 안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.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. 우리는 실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실상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립니다.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. 믿음의 실상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.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.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.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이 실상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.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. 일주일간 살아가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오늘 예배에서 회복해야 합니다.

▶지난주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(요6:29) 예수를 그리스도로,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

▶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(요 6:39)

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살리는 것입니다.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.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.

▶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(요 6:40)

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왜 인생이 지옥에 갑니까?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.

▶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

우려 하심이라(히10:9)

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▶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(살전4:3)

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

▶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(살전 5:15-18)

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

▶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단순히 예수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. 반드시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자칫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이 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재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. 그래야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. 그 방향이 바로 237과 5천 종족입니다.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전도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.

<본론>

1.예수의 피

▶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(히10:19)

과거의 우리는 이 담력이 없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양 잡고 소 잡았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이제 성소 앞에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증을 줍니다. 이 보증서,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에게는 모든 재앙과 죄와 저주가 유월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. 오늘 정말로 담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
▶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(히10:20)

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담대히 가니까 휘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. 죄인은 절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나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.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. 예수의 피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. 오늘 이걸 붙잡으면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.

▶휘장은 곧 그 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살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삽니다.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?

▶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(히10:21-22)

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.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,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.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피의 실체가 예수의 피입니다.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

▶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(히10:23)

언약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.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딴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이 믿음을 바꾸거나 변개하면 안됩니다.

▶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(히10:24-25)

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, 오직 하나님의 나라, 다른 것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.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합니까? 예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.

2.생각하라(각인시키라)

▶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(히10:26)

진리를 아는 지식은 복음입니다. 이 복음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고 합니다.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 한번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. 예수의 피는 유일하고, 절대적이고, 완전한 구원입니다. 단 한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.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.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.

▶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(히10:27)

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함을 놓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.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.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

있습니다. 맹렬한 불은 심판의 결과입니다.

▶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(히10:28-29)

구약 시대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비참하게 죽었는데,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?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너희는 생각 하라고 말합니다.

▶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(히10:30)

영생이나 멸망이나,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그 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.

▶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(히10:31)

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배교하는 자, 복음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. 인생에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.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.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. 100년을 하나님이 없이 부자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?

▶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. 실체를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.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. 이 정도의 기본적인 믿음은 소유해야 합니다. 일주일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도 예배만큼은 실상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와야 합니다. 실상을 대면한다 생각하면 예배를 안 오겠습니까? 예배에 늦겠습니까? 이게 믿음의 강도입니다.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. 아무리 나라 경제가 발전해도 국방이 약하다면 어느 날 찾아온 한방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.

3.의인은 믿음으로 산다

▶서론에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. 예배는 실상을 증거로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대충 드립니다. 그런데 실체가 실상으로 보인다면 함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?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.

▶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(히10:32)

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,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고난을 더 견뎌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.

▶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얕이라(히10:33-34)

왜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는 소유를 빼앗겨도 괜찮습니까?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빼앗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. 이런 형편, 저런 형편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, 답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.

▶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(히10:35)

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예수의 피의 비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속에 각인된 이 복음의 각인을 바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.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

▶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(히10:36)

약속한 것이 있습니다. 이 복음을 붙잡고 인내하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은 약속된 것입니다.

▶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(히10:37)

재림주가 잠시 후에 오실 것입니다.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.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. 인생은 100년입니다. 100년을 선택할 것이냐, 영원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.

▶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(히10:38)

나의 의인의 증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.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되어선 안됩니다.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선 안됩니다. 이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선 안됩니다.

▶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(히10:39)

우리는 육신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. 이 피를 가진 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.

〈결론〉

▶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피입니다.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.

▶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.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야 합니다.

▶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.

▶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. 주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십니다. 이걸 성취될 말씀입니다.

▶의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.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.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생명빛교회

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

주 소 :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-147호

담임목사 : 곽동호

전 화 : 010-5205-4079

E - mail : dhkwak0224@hanmail.net

인생복음상담 : 070-4406-4079